

오방색으로 치유의 만다라 표현

김인섭 만다라전-오행상생 I
16~22일까지 경인미술관서

전통의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방색이 불교와 만나 만다라로 태어났다. 김인섭 작가의 만다라전-오행상생 I이 1월 16~22일까지 경인 미술관에서 열린다.

김 씨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만다라는 물론 불교의 사물을 응용한 작품 20여 점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김 씨는 다섯가지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색을 통해 작품을 표현했다. 오방색은 정, 흥, 황, 흑, 백 다섯 가지 색으로 방위를 나타낸다. 또한 이는 나무, 불, 흙, 쇠, 물 기운의 움직임인오행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형은 땅을 뚫고 솟아나와 끊임없이 생성하는 나무의 기운을 △형은 스스로를 남김없이 태워 빛과 열을 사방으로 발산하는 불의 기운을 △형은 만물을 풀어 터전을 이루는 흙의 기운을 △형은 발산했던 힘을 안으로 수렴하여 알차게 열매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씨는 이런 오방색의 의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싶다고 전한다.

“건강이 안 좋았던 제가 만다라를 그리며 많은 안정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이 관람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다가 오방색을 메인 테마로 불교적인 부분을 집속시켜 표현하고자 했죠”

작가는 이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양에서 색채 심리학을 통해 심리를 치유하듯이 오방색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품에 임했어요. 대중들이 제 그림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형화된 만다라에서 벗어나 한국 불교의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래서 노란색 흑색 백색 바탕 위에 묵어

와 범종이 나란히 배치돼 있는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티베트의 만다라는 정형화 돼 있는 것이 많아요. 원은 우주를 상징하고 사각형은 지구 삼각은 인간을 나타내죠. 이런 문양들의 반복이 만다라로 표현되지만 한국의 만다라는 큰 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찰의 가람 배치, 탱화 등을 응용해 저만의 만다라로 표현해봤죠”

김 작가는 이런 일련의 작품활동 모두가 포교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산수와 작품을 그려오던 작가는 90년대 후반부터 동산불교대를 다니면서 불법을 공부하고 참선 등을 통해 꾸준히 수행을 해왔다. 이후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법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포교당을 열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오방색 마음의 안정 찾아줘

한국형 만다라 표현도 눈길

포교당 열어 그림지도 발원

“모태 신앙이었지만 불교에 대해 깊게 알지는 못했어요. 90년대 말부터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 법 만난 기쁨을 알았죠. 이런 마음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만다라 그림도 그리게 되었어요. 앞으로 포교당이 마련된다면 불법강의는 물론 만다라 지도를 하며 많은 이들에게 제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김인섭 작가는 동국대 교육대학원(미술교육)을 졸업했다. 동산불교대를 거쳐 불교연합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개인 전으로는 길상만다라전(불일미술관) 코스모스 갤러리 기획 초대전 등이 있다.

제 3회 관악 현대 미술대전 특선, 제 36회 경기도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한 바 있다. (010)4928-254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김인섭 작가는 오방색을 응용한 만다라 20여 점으로 관람객들을 찾는다.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1. 꽃병→만병

생명력 가득찬 꽃병은 '만병' 이었다

조형언어 해독 다시 문자언어로

불교미술사는 한국미술사이다. '불교미술'이라고 왜 스스로 한정짓는가! '한국미술'이라고 불러야 한다. 건축(사찰건축, 궁궐건축)-조각-회화-공예(도자공예, 금속공예)-복식 등 한국 조형미술의 모든 조형은 고차원의 불교미술 아닌 것이 없다. 사상과 문화도 마찬가지다. 원효는 불교사상가인가. 아니다. 한국사상가이다.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불교 용어가 없다고 해서 불교문학이 아니라 하겠는가. 그 시집은 한국문학의 금자탑이다. 왜 항상 불교만 찾아서 불교미술이란 용어로 점쳐서 붙여서 스스로 작게 한정시키는가. 불교계는 불교문화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대학시절 25세부터 미술사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는데 하면 지금까지, 반세기라는 긴 세월 50년 가까이 공부해 해온 셈이다.

그동안 논문도 많이 썼고 저서도 열 권 이상을 펴냈다. 모든 논문의 주제가 불교미술, 특히 불교조각이지만 나 스스로 불교조각전공자로 인식한 적은 없다. 요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불교전공자로 알고 있다. 나의 학문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이화여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이다. 그 학문의 대전환이란 것은 서서히 이루어졌는데 대전환의 계기는 고구려벽화의 안목 같은 조형들을 기적적으로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비롯한다. 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2년이 흘렀으며 그동안 정립한 이론은 <영기화생론 靈氣化生論>이란 방대한 것으로 인류 보편적인 이론으로 정립하여 가는 도중에 있거나 빠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나의 연구대상은 갑자기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로 무한히 확장되었으며, 영기화생론은 조형미술뿐만 아니라 언어학-사상-종교-문학-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확대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인 것은 인류가 이루어온 무량한 조형미술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진실에 도달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단지 방산의 일각만 보인다는 것에 놀란 것보다 더 경악한 것은, 그나마도 용어들이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문적 대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 자신도 그런 진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릇된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이런 용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까닭은 예

술작품의 여러 개념들을 요약한 것이고 그 용어에 의하여 뜻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바다 밑의 거대한 빙산을 발견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생이 보이게끔 해야 했으며, 보이지 않았던 조형이므로 이름이 없어서 신(神)이 아닌 내가 조형들의 이름들까지 부여해야 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수많은 새로운 조형들의 상징을 밝혀내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런 조형의 구성 원리와 상징구조를 밝힌 다음 만든 용어들을 만들었으므로 나름의 근거가 있는 용어들이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니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때때로 중국이나 서양의 예도 들게 될 것이다.

내가 밝힌 것이란 한 마디로 '조형언어'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독해낸 것이었으며, 문자언어에 문법이 있었듯이 조형언어에도 문법이 있어야 하므로 그것을 정립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해독한 조형언어를 다시 문자언어로 바꾸어 써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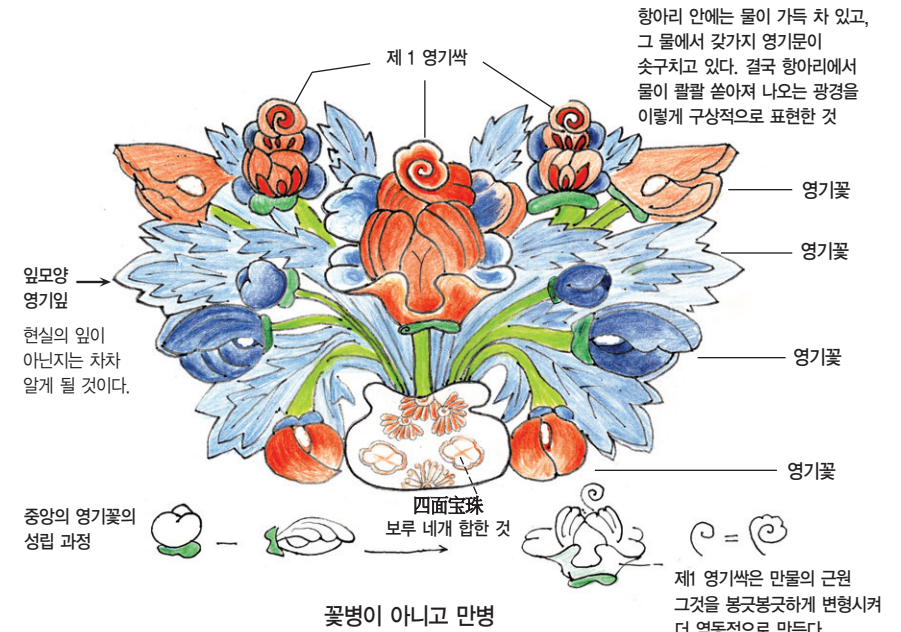
전주 풍남문 화반 꽃병

꽃 아닌 영기문 발산

는 괴로움이 있는데 결국 조형언어는 문자언어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연재에는 작품 사진과 작품을 채색분석(彩色分析)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도 여러분은 종전의 안목과 사고력과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가 생소한 조형이고 모두가 낯선 이야기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의 소리이므로 그 조형이 보이고 상징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조건이 있다. 이 연재는 여러분이 눈을 떠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내가 해독한 조형언어 문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조형들이 새로이 풀리게 된다. 앞으로 잘못된 용어, 아무 의미 없는 용어들을 낱낱이 증명해가며 올바른 용어로 바꿀 것이다. 그 수많은 용어들 가운데 우선 '꽃병'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왜 꽃병이 '만병'인가

사찰건축에 가보면 법당과 누각의 안팎에 꽃병 그림이 매우 많다. 뿐만 아니라 궁궐이나 문루 등 한국건축에도 많다. 한국건축은 불교건축을 올바로 연구하지 않으면 풀리지 못한다. 꽃병을 조각하여



화반을 삼기도 하고, 포벽에 그려 넣기도 한다. 화반이란 포와 포 사이에 놓여 장화와 창방 중간에 놓인다. 이러한 화반을 주로 개방적인 건물 즉 누각이나 문루(門樓)의 건축에서 볼 수 있어서 화반 양쪽으로는 터져 있다. 개방적이 아닌 법당인 경우에는 공포와 공포 사이를 벽으로 막고 회를 바른 다음 그 포벽(包壁)에 꽃병을 그린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개방적인 누각인 경우에는 반드시 용의 얼굴(龍面)을 조각한 것과 꽃병을 조각한 것을 교대로 배치하여 화반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꽃병들은 과연 말 그대로 그저 단순한 꽃병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왜 꽃병을 그토록 많이 조각하여 용면과 한 세트를 이룰까? 어떤 분은 공양화(供養花)라고 한다. 요즘도 사찰건축에 관심이 많아 건축학회에서 여러 주제들을 발표하고 학술지에 실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건축 의장(意匠)에 우리나라 사상과 조형의 본질이 옳았기 표현되어 있음을 알았다.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꽃병의 비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일체의 전통미술에는 중요한 우주관이나 인생관이 반영되지 않은 조형은 없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는 장식에만 알고 지나치니 전통미술도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한 용어들 가운데 우선 '꽃병'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가운데 7년 전 어느 날 밤, 조명을 받으며 뚜렷하게 보이는 전주 풍남문(豐南門)의 화반에서 꽃병을 보았는데 이 꽃병에서 나오는 것이 꽃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사진을 찍어서 돌아와 그려보고



풍남문 만병 화반

채색분석하여 보니 놀랄게도 영기문(靈氣文)이 발산하여 나오는 광경이었다. 영기문이란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가시화한 갖가지 조형을 나는 영기문이라 이름 지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이름이 없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조형에 내가 이름을 붙여나갈 것이니 여러분은 정독하여 주시기 바란다.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이나 '우주에 충만한 성령(聖靈)'이나 '삼천대천세계(우주)에 가득 찬 여래' 등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여래는 한 마디로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어서 만물을 생성시킨다. 바로 그 갖가지 영기문이 화반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그 때부터 나는 꽃병이 아니고 다른 성격임을 짐작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점차 '대생명력이 가득 찬 병' 즉 만병(萬病)이라는 만물생성의 근원이라는 도상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우선 풍남문의 꽃병을 그려서 채색분석(彩色分析)한 것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함께 할 것이다.



강우방 (일할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생을 위해서 한국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천재주부리면 귀야비 귀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 전시장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s.com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산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상** / 02)2004-8216

☎ 053-01-289062 (주)현대불교신문사